

‘책 읽는 나라’로 나아가는 멕시코

혁명적인 독서진흥책 발표됐지만 정부 지원은 미온적

정창 | 번역가·출판기획자

라틴아메리카로 들어서는 발걸음은 늘 무겁다. 아르헨티나에 비해, 아니 그 어느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멕시코 역시 예외는 아닌데, 이번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소식이 마음을 착잡하게 만든다.

폭스 정부는 올해 5월 들어 가히 혁명적인 문화 정책, 즉 독서 진흥책을 시행 중이다. 그들의 표현처럼 21세기 라틴아메리카에서 최대의 국가주도 문화사업이 될 독서진흥책은 대략 18개월 전, 70년에 걸친 PRI(제도혁명당)의 일당 독재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 수반으로 선출된 폭스의 취임식에서 시작된다. 폭스는 이 자리에서 문화교육 분야의 최우선 개혁 과제로 독서 진흥책을 천명했던 것이다. 주요 골자는 ‘책 읽는 나라’라는 슬로건과 함께 1천1백개 공공 도서관을 신축하고 2천여개 공공 도서관을 현대화하며 1억2천만 권의 도서를 구입해 도서관에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그 가운데 마르타 사야군(영부인)이 앞장서게 될 도서관 확충 사업은 약 4억달러가 소요되며 향후 4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출판 활성화에 찬물 끼얹은 부가세 시책

사실 멕시코 최소 행정 단위당 1개 이상의 공공 도서관을 세우는 일은 실로 혁명적인 발상이다. 대부분 ‘열악한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감안하면 ‘부러워할’ 국가 정책이자 개혁 프로그램이라는 뜻이다. 더욱이 이번 도서관 확충 사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빌 게이츠의 지

원이다. 지난해 그는 시애틀에서 화상 통화를 통해 “책이 도서관의 골수라면, 인터넷은 거대한 정보 은행으로 들어가는 통로다”고 역설하며 동참의사를 표명했다.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 교육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4천만 달러를 기증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인가. 멕시코 재무 당국은 폭스 정부의 독서 진흥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직후, 출판산업 분야에 15%의 부가세를 거둬들이겠다는 시책을 내놓음으로써 정부의 장밋빛 프로젝트에 고개를 갸우뚱하던 출판계에 찬물을 끼얹고 나섰다. 물론 혁명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하다 보면 부차적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92.7%가 영세 출판업자들인 멕시코 출판산업의 현실에 비춰볼 때 재무 당국의 조처는 무리수다. 가뜩이나 빈사 상태에 놓여 있던 영세 출판자들의 목을 조이려 드는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에 대해 멕시코 작가협회 회장인 빅토르 R. 라스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앞뒤를 못 가리는 재무 정책에 분노한다. 더욱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4~5%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가. 이번 조처는 대통령이 낮에 실을 감으면 재정 당국은 밤에 그 실을 풀어놓는 꼴이다. 12가지 품목, 이른바 테킬라, 과일, 신발 등은 여전히 세금이 감면되고 있는데, 책에 세금을 부과해서 어찌겠다는 말인가!”

거대 자본논리에 영세 출판사들 발목 잡혀

재무 당국의 발표에 대해 멕시코 주요 언론의 반응은 냉담하다. 그들은 지금까지 관례로 여겨져온 면세 혜택이 사라지면 출판업계 대부분은 문을 닫게 된다고 전제하면서 자국의 문화 산업이 외국, 특히 스페인에 종속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편, 15%의 부가세가 부과

되면 책값이 10%에서 40%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또한 서적 컨설팅 회사인 세이메스-외파의 이사 알프레도 코우티뇨는 출판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멕시코 출판업자들이 거대 외국

회사들에 귀속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진단한다. 그는 멕시코가 반(反) 문화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정체성을 잃을 것이라면서 이번 조처를 1845년 텍사스가 미국에 합병됐던 과거의 악몽에 비교하고 있다.

아울러 알파과라 출판사의 마리솔 솔츠 역시 이미 20% 이상 책 생산 단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번에 발표한 부가세 시책은 출판사의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케 하는 조치라고 확언한다.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하듯 실제로 적지 않은 출판사들은 이미 원가 상승과 막대한 세금 부과 정책에 대비해 콜롬비아, 중국, 홍콩 등지에서 책을 인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멕시코는 독서 지수 하위 국가로 분류된다. 그들의 독서 지수는 출판사의 영세성과 서점의 규모나 숫자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멕시코 서점은 평균적으로 인구 1백만명당 4개소에 불과하다. 스페인이 인구 4천만명에 3,159개의 서점이 있는 반면, 인구 1억명에 달하는 멕시코는 고작 385개의 서점이 문을 열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 멕시코는 1910년의 혁명이 아니라, 21세기의 사회 개혁과 지적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폭스 정부는 70년만에 정권을 교체한 자국민들의 염원을 잊지 않는 슬기를 발휘할 때다. ■



폭스 정부는 혁명적인 독서 진흥책을 발표했지만, 재무 당국은 오히려 출판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진은 멕시코 정부의 홈페이지.